

 KB Kookmin Bank

RaonAtti

 KOREA NATIONAL COUNCIL OF YMCAS

BEGINS

OUR FIRST LOGS OF RAONATTI

© SAN PABLO CITY, LAGUNA, PHILIPPINES:)



VOLUME 1.

2013. 03. 07 - 2013. 03. 31



MARCH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FIRST ORIENTATION AT PHILIPPINES YMCA	8 DEPARTURE! SAN PABLO YMCA WELCOMING CERE- MONY	9 JOG AT THE SAM- PALOC LAKE FIRST PERSONAL INTERVIEW /W MOM- MY
10 CHURCH	11 VISIT BAGONGPOOK ELEVIMENTARY SCHOOL / CITY HALL	12 FEEDING AT BGPE	13 FEEDING AT BGPE 필리핀 연맹 사무총 장님 / MS. BAM BOON CHIN 방문	14 FEEDING AT BGPE	15	16 VISIT STA. CRUSE JOIN THE "LA LA- GUNA FESTIVAL"
17 JOG AT THE SAM- PALOC LAKE REFLECTION TIME W/ MOMMY	18 VISIT BALOC	19 GRADUATION CERE- MONY AT BGPE VISIT TITA GRACE'S FIESTA VISIT CHIEF BOARD DIRECTOR'S HOUSE	20 LANGUAGE EX- CHANGE W/BATANG Y	21 LANGUAGE EX- CHANGE W/BATANG Y	22 LANGUAGE EX- CHANGE W/BATANG Y VISIT-"CANOSA COL- LEGE" TO WATCHING THE PLAY	23 EVALUATION OF LANGUAGE EX- CHANGE JOG AT THE SAM- PALOC LAKE VISIT SM SAN PABLO TO INTRODUCE OURSELVES FIRST LANGUAGE CLASS W/MOMMY
24 REFLECTION TIME W/ MOMMY MEETING /W ATTY SASSI VISIT THE CATHE- DRAL	25 LANGUAGE EX- CHANGE W/BATANG Y ALR RESULT CHECK KOREAN FOOD DAY:) MOMMY-RENEWL VISA AT MANILA	26 SUMMER'S BIRTH TRUST GAME	27 LANGUAGE EX- CHANGE W/BATANG Y VISIT-POST OFFICE	28 29 HOLY WEEK :) CLIMB TO THE MT. BANAHAW JOIN THE REOGINAL PARADE		30 VISIT "SOUTH WIND RESORT"
31 REFLECTION TIME W/ MOMMY, BATANG Y & JEK, IAN						





오환철(Noah), 26 yrs old

Yonsei University

San Pablo YMCA

특이사항 -

체중계 남매, 팀의 야무짐 담당, 쿼야, 졸리비, 약장수, 와이파이 헌터, SMART WAR, MASARAP BOY, 독실한 종교인, 종합병원, 생선 싫어..., 마미의 개인비서, 에어로빅 본능, 나들이 전도사, 환철 족장,

RaonAtti

김기성(Kim), 23 yrs old

Kyungbuk University

San Pablo YMCA

특이사항 -

가라데보이, 바스켓볼맨, 키 큰 편, 팀의 진중함을 맡고있음, 아이들의 아이돌, 게이계의 왕자, 바퀴벌레 무서워, 모자 사랑, 바속 두속 빠른, PERFECT. 잠만보, 좀 밝힘, Hamburger boy, Ako po si KIM, 마미 안마사, 아이안 친구





INTRODUCE OURSELVES :)

손정운(Summer), 22yrs old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San Pablo YMCA

특이사항 -

퓨어걸, 예뻐, 몸짱 파파와 베이비, 리틀 밤부, 레깅스 러버, 모기 먹이, 오프로션 중독, 빵~엣, HSP (Hungry, Sleepy, Princess), 급소진 담당, 버터링 골룸, 샤워광, 부채 파인더, 발록 이안^^, 안타까워함 담당



김미래(Remy), 20 yrs old

YOUNG NAM UNIVERSITY

San Pablo YMCA

특이사항 -

분소, 팀의 엄격함 담당, Hamburger Boy, Don't be shy, 다리 위 도마뱀의 습격, 교회 러버, 망고킬러, 안경끼면 귀여운 구로, 체중계 남매, L?R?Z?, "은내 에름은 알쥬 입뉘되", 발록 이안, 열혈 영어 공부,



YMCA OF SAN PABLO CITY, INC. WE MAKES HISTORY :)



MOMMY



TITA DORIS

MOMMY'S FAMILY



IAN



JEK

BATANG Y



BERNZ



JEFFRY



RJ



KING



3월 6일!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정말 '정신 없이' 비행기에 올라 탄 우리들은 그 어느 팀보다 빠르게 필리핀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아직도 공항에 있다던데...

필리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주룩주룩, 부슬부슬 내리던 비! 연락이 늦었던 탓에 현지 YMCA 직원이 우리를 마중은 나올 것인지, 아니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는 알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카페를 겨우 찾았지만, 한국 사무국 간사님의 카톡 창은 여전히 무반응. 답답한 마음에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으로요.



용감한 KIM이 공항의 Security Guard의 핸드폰을 잠시 빌려 왔고, 우리는 막무가내로 San Pablo YMCA의 사무총장님인 Mommy Christy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간의 정적 후에 들려 온 낯선 목소리.

어리버버한 영어로 사정을 설명하자, Mommy는 단 몇 마디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Don't worry."

잠시 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 직원, Marciel과 조우했고, 그렇게 우리와 필리핀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단 하루! 우리는 마닐라에서 하루의 시간을 보낸 후, 바로 파견지인 San Pablo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YMCA 연맹의 담당자, Marciel은 짧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시내 한 복판의 마닐라 YMCA 유스호스텔에 짐을 풀고, 바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사도 드렸구요. 아쉽게도 필리핀 연맹의 사무총장님은 해외 회의 차 자리를 비우신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필리핀의 국부, Hose Rizal 광장과 Fortress Santiago, Cath-





dral 등을 둘러 보며, 필리핀의 문화와 전통, 역사들을 가볍게라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필리핀 연맹에서 실시한 자원활동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듣는 것보다는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 것인지를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필리핀 현지의 전반적인 사정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세 개의 큰 지역(군도)로 이루어진 국가, 필리핀. 극심한 양극화와 확산되는 환경 오염 등, 현재 필리핀이 극복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도 엿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바로 San Pablo로 출발!

오는 길은 한국의 여느 풍경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길가에 코코넛 나무가 주렁주렁, 바나나도 매달려 있고. 하늘은 참 높았고, 낮선 트라이시클과 지프니가 대형 버스와 함께 속도를 뽐냈습니다. 두 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곳, San Pablo YMCA! 사진으로만 보았던 풍경을 눈으로 마주하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물려 왔습니다. 5개월, 150일을 보내게 될 곳.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건물 안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푹,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구하셨는지, 석수골 도서관에서 입었던 동물 탈 사진이 새겨진, 환영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 환한 미소의 사무총장님, Mommy





Christy와 Batang Y 친구들이 장미꽃을 한 송이씩 건네 주었습니다.



정신 없이 이어지는 환영 세레! 짐을 풀자마자 시작된 것은 환영 행사였습니다. 우선, 놀라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한 상 차려졌습니다. 겨우 오후 네 시인데.. 저녁이 제법 빠르구나 싶은 마음에 우리는 이른 저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국수도 있었고, 망고도 있었고...

식사가 끝남과 동시에, 똑같은 색의 옷을 갖추어 입은 San Pablo YMCA의 Board member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느 새, 어디서 왔는지 모를 노래방 기계가 현관 한 곳을 차지했습니다. 연이어 시작된 공식 환영 행사!

우리는 촛불을 나누어 키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께 기도했고, 함께 웃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노래는 이어졌습니다. 아, 식사도 이어졌습니다.... 8시가 되니 밥을 한 번 더 먹더라고요.

모두 참 맛있었습니다. San Pablo에서의 첫 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PHOTO ESSAY :)

WRITTEN BY NOAH

정말, 어딜 가나 들려 옵니다. 낮익은 목소리, 낮익은 멜로디. 심지어 선거 유세 차량도, 삼팔록 호수의 아침 에어로빅장에서도, 싸리싸리 스토어와 대형 매장에서도, 신성한 바나하우 산에서도.

유튜브를 점령한 세계 가수, 싸이는 필리핀에서도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찾아 볼 수 있는 Vidioker(노래방 기계!)에서 강남 스타일을 찾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략 8가지 버전의 강남 스타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Original Version부터 Duet with Madonna, MC Hammer 버전까지... 말 그대로 엄청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제가 지나갈 때면, 인사 대신 "Oppan Gangnam Style"을 외칩니다. 조금 소심한 사람들은 읊조리는 것도 같습니다. Bagongpook Elementary School에 처음으로 방문했던 날, 처음으로 "싸이 다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좋았지요, 그 땐.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아이들은 Kuya(형) Noah가 아닌, Kuya Psy로 절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아니 싫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며칠을 투덜대다가, San Pablo YMCA 이사장님의 초대를 받아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잔뜩 지쳐 있던 터라, 저와 Remy, Mommy 세 명만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잔뜩, 거니하게 밥을 먹고 나니, 당연히 Videoker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이사장님께서 Welcoming Ceremony때 참석 못 해서 미안하다 하며 노래를 불러 주셨습니다. 자연스레 답가 차례가 되었고... 30분을 고민하다 결국 고른 것이 강남 스타일이었습니다. 한국 노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샤이니 노래를 한국어의 힘 하나 믿고 부를 수도 없고....

시작된 강남 스타일... 은 AR이었습니다.... 싸이 목소리가 나오더군요. 이게 아닌데 싫어, 노래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더군요. 에라 모르겠다 싫어, 춤이라도 추자 결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물론 춤은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모두들 즐거워해 주었습니다. 정말 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싸이 형(!) 덕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부터, 조금씩 싸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참, 인간사 마음먹기 다름이라더니.

아, 요즘은 그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변신이 너무 격해서 그런가, 싫기도 합니다.)





1ST WEEK, MARCH.

3. 11(MON) - 3. 17(SUN)

우리가 필리핀에 도착한지 4일 즈음이 지났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곳 SAN PABLO에 적응하기 위한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곳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 SAN PABLO의 주요한 곳들을 방문했다.

물론 마미와 함께:) 우선 우리가 머물게 될 **SAN PABLO**의 시청, 우리가 FEEDING을 진행할 **Bagong Pook Elementary School**, 우리를 지원해 주실 **교육청**, 그리고 SAN PABLO가 가진 7개의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인 **Sampaloc Lake**를 방문했다.

그 다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자주 찾아가게 될 market들도 방문했다:)

가장 작은 규모인 **사리사리**부터, 한국의 대형 유통마트 같은 **PURE GOLD**, 한국의 시장과 비슷한 **wet마켓**, 그리고 SAN PABLO에서 가장 크고 Philippines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SM MALL**도 방문했다.

<CITY HALL>

우리는 마미와 함께 SAN PABLO 시청에 방문했다. 시청으로 가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필리핀의 대중교통 트라이시클을 체험했다. 오토바이 옆에 보조석이 달려있는 형태로 한국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해 본 교통수단이였다. 마미를 포함한 우리 5명이 한 대의 오토바이의 힘으로 시청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이곳의 교통수단과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은 놀랍다.

마미는 시청의 여러 직원들과 꽤 친분이 있어서 덕분에 수월하게 시장님과 인사도하고 우리 라온아띠의 소개도 하고 SAN PABLO에 대한 소개도 들을 수 있었다. 우리가 SAN PABLO라는 마을에 Volunteer이란 이름으로 방문하긴 했지만 이렇게 한 지역의 시청까지 방문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 나의 생각보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SAN PABLO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꼈다. 낯선 한국청년들을 따뜻하게 반겨 주신 분들께 SALAMAT PO!



산 파블로 시 경찰서에서 :)



AT THE MUSEUM OF SAN PABLO CITY



<BagongPook Elementary School >

San Pablo YMCA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바공포옥 초등학교.

이 곳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고 이 학교가 우리가 FEEDING을 진행하게 될 학교이다. 역시나 교장선생님께서 반겨주셨고 다른 선생님들께도 우리의 소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도 반마다 돌아다니며 우리의 소개를 했다.

예상대로 많은 학생들이 '라온아띠'를 반겨주었다. 아직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가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했다. 우리가 SAN PABLO에 방문한 4번째 기수인 만큼 앞의 전 기수들이 BPES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흔적들이 보이기도 했다.



안산에서 국내 훈련 중 석수골 도서관에서 BPES로 도서관 지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 그 도서관이 우리에게 MISSION처럼 남겨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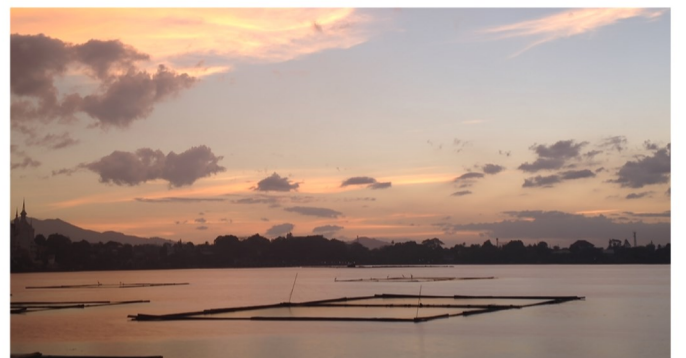
이야기로만 듣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 정말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장실을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몇몇 종류의 책이 구비되어 있었지만 BGPE학생들이 거의 읽지 않는 것 같았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가 BGPE에서 피딩과 함께 도서관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기대된다. :)

<산발록 LAKE>

이곳 SAN PABLO는 필리핀에서 7개의 호수를 가진 관광지로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는 SAN PABLO YMCA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산발록 LAKE를 가보기로 했다.

정말 아름다웠다..! 우리 단원들 모두 낚을 놓고 바라보았다. 내 생각보다는 호수가 꽤 컸다.



호수를 따라서 조깅 코스도 마련되어 있었고 일요일이면 마라톤이 열리기도 한다. 우리 뿐 아니라 현지인들도 꽤 있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그런지 맛있는 사리사리(가게)도 많았다. 우리도 부코JUICE를 마시며 호숫가를 거닐



1ST WEEK, MARCH.

었다.

앞으로 남아있는 6개의 호수들도 얼른 방문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

< FEEDING PROGRAM IN BPES >

3월 12일, 13일 이틀에 걸쳐서 저희는 BPES에서 FEEDING을 진행했습니다.

아직은 피딩이 처음이라 기존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침 피딩으로 아침 6시까지 BPES에 도착해서 필리핀 빵인 빠디쌀과 영양죽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번엔 처음이라 음식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지만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피딩이 시작되면 메뉴 선정과 조리 그리고 배식까지 모두 저희가 진행하게 됩니다.

전 세계 중에서 다른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 곳은 기본적인 식사가 잘 이뤄지지 않는 생활환경을 보면서 우리 단원들도 각자 많은 생각들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FEEDING 자금을 FUNDING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저희들의 고민 중 하나입니다 ^^.

<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방식 '손빨래' >

이제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매일 옷은 갈아입지만 빨래는 하지 않아 옷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드디어 빨래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는 마미에게 손빨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층 농구장 구석 편에 빨래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세탁기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빨랫감을 넣으면 전기를 이용해 돌려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이 곳은 여름이라 옷의 짠 기운을 한번 물에 행군 다음에 다시 세제를 넣고 그 기계에 돌리고 다시 옷을 꺼내서 거품이 없어질 때까지 행구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세탁기라는 기계를 통해 빨래를 했기에 손빨래 방식이 낯설었습니다. 쭈구려 앉아서 빨래를 비비는 것이 힘들었고 물을 기계에 붓고 빨래를 건지고 3번 이상을 다시 행구고 가끔은 빨래실에서 물을 사용하면 화장실에 물이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세제 또한 한국보다 독해서 피부가 가려운 단원도 있



었습니다. 사실 처음 손빨래를 할 때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불평불만도 많았지만 마미께서 이것이 필리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래를 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두세 번 손빨래를 하다가 YMCA앞에 빨래방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가격은 4KG에 4천원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미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빨래는 손으로 하는 방식이 낫다고 해 주셔서, 노력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LALAGUNA festival >

우리가 SAN PABLO에 머물면서 처음으로 방문한 축제! 바로 LALAGUNA festival!

처음으로 SAN PABLO를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온 탓인지 우리 모두 들떠있었다! 코코넛으로 만든 많은 구조물들이 있었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코코넛을 이용해 만든 패션쇼도 관람했다.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축제 지역 이곳저곳에서 사진을 남기고 그 곳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축제를 만끽했다! 그렇지만 축제를 마치고 SAN PABLO로 돌아오는 교통은 너무나 불편했다. 우리가 한국에서 당연히 사용하던 버스나 자가용의 형태가 아닌 미니 트럭에 의자 받침대 두 개가 놓인 구조였다. 알고 보니 그 미니트럭은 정치적 홍보가 붙은 트럭으로 대여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YMCA의 재정상태가 넉넉한 편이 아닌 것을 무척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 미니트럭은 우리가 느끼기에 참 불편했다. 이곳은 한국과 비교해서 교통편은 불편하지만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한다. 우리와 함께 축제를 즐겨준 마미를 포함한 YMCA 식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





<발록에 가다>

시작은 말로만 들었던 발록 커뮤니티에서 부터였습니다. 모두들 한 번쯤은 들어 보았던 필리핀의 쓰레기 산과, 그 산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에 실제로 보게된다는 것에 조금은 긴장하고 또 조금은 걱정하며 처음으로 발록 커뮤니티의 사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상과는 달리 우리가 간 발록의 커뮤니티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곳도 아니었고 쓰레기 산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 많은 필리핀의 마을들이 그렇듯 발록 역시 큰 키의 열대 나무들과 초록 풀들 사이에서 작은 집들이 웅기 종기 모인 마을이었습니다. 물론 밝은 대낮에도 전깃불을 키지 않아 어두운 집안과 우리를 맞아 꺼내온 낡은 선풍기, 부서졌는지 아니면 만들고 있는지 모를 아직은 덜 완성된 집들은 작게 한숨짓게 했습니다만 적어도 그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시 우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낼 어머니들과 그 가족들 신기한 듯 큰 눈 동그랗게 뜨고는 수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이들 모두 그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우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가난은 당연한 것이 아니지요 누구나 위로 가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일 겁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바공포옥 초등학교 졸업식>

바공포옥 초등학교의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우리와 인사하고 웃던 아이들이 하얀 졸업가운을 입고 의젓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문득 어릴적 우리의 졸업식이 생각나고 다시 우리가 썼던 일기가 보고 싶어 졌습니다. 어릴 적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또 지금은 얼마나 자랐을까요?

이번에 졸업하는 한 친구는 나이가 21살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용기인 것 같습니다. 일도 하며 아이들과 함께 다시 초등학교에서 부터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그저 공부에 대한 열정 가지고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성극>

카노사 학교에서 성극이 열린다 하여 보러갔습니다. 물론 잭의 남자친구가 주인공이라서 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 일 것입니다만 이 연극을 통해 많은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은 따갈로그어로 진행되어 사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학생들의 연기를 보며 대중은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전교생까지 더라도 강당을 꽉 채울 만한 학생이 모인 곳에 공식적인 학교 행사가 열전에 진행된 이 성극은 성 페드로라는 필리핀의 성인을 기리는 극입니다. 중요한 학교 행사중 하나로 열리는 공식적인 연극이 성인을 기리 연극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에서 조차 필리핀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를 진지하게 또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인지 조금은 엿 볼 수 있었습니다.



PHOTO ESSAY :)

WRITTEN BY KIM

필리핀의 여름은 너무 덥다. 엄청 덥다. 정말로 덥다. 여기는 더위를 피할 에어컨 딸린 방도 없고, 온 종일 선풍기 앞에서 붙어있을 수도 없다. 샤워는 해도 빨래감만 늘고 빨래를 하면 빨래 해야 할 옷이 다시 생기는 날씨가. 특히나 덥고 땀나고 찝찝하고 답답한걸 못 견디는 나로서는 정말로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래서 나는 가라데를 배운다. MWF 월,수,금 하루에 각 2시간씩. 두껍고 길기까지 한 흰 도복을 입고 그저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날씨에 뛰고 찢고 구르다 보니 2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복 전체가 젖을 정도로 땀에는 찢고 온 몸은 피곤에 찢다. 내일 모레 또 할 걸 생각하면 도복은 빨 수도 없고 몸에 땀인 열기는 아무리 선풍기 앞에 앉아 있어도 후끈 후끈 돌아올라 샤워를 해도 식지를 않는다.

그래도 나는 어릴적 태권도 배울 때를 생각하며 발차기 하는 것이 좋고, 흰 띠 매고 다양한 색깔의 띠를 맨 꼬맹이들 한테 둘러싸여 노는 것도 좋고, 이쁜 어린 사범님이 인사 해주는 것도 좋고, 죽을 듯 힘들다가도 시원한 물 한잔에 살 것 같은 쉬는 시간도 좋다. 특히 수업을 다 듣고나서 어느새 무거워진 도복 끈 하나 풀어 놓고 시원한 바람 맞으며 쉬고 있으면 늘어진 몸에 나른한 기분이 너무 좋다. 이미 젖은 몸 더위도 안 무섭고 땀도 안무서우니 도복입은 채로 농구도 하고 오히려 더운 것을 더 즐길 수 있는게 좋다.

그래서 난 가라데 수업이 좋다, 그렇게 나는 더위를 견딘다. 아마 시간이 지나고 이 여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더운 여름을 견디는 법을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 좋다.





SECOND WEEK

ALUMNI

STIERS

START TO ADJUSTMENT OURSELVES

<랭귀지 익스체인지>

한 주 동안 바탕와이 친구들과 아이안과 함께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했던 이 프로그램은 서로 한명씩 짝을 지어 돌아가며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우리와 달리 현지 친구들이 너무 진지하게 임해줘서 아무 준비를 안했던 우리가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나갈 수록 친구들과도 더 친해지는 것 같고 서로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무언가를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현지 친구들도 더 힘들었겠지요. 그런데도 열심히 진지하게 임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은 더 이상은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생기기도 했고 매일 정기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힘든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겨워 한 적도 있지요. 하지만 할 점은 우리는 좀 더 이 시간을 더 치있게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냥 서로 배워야 할 것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재밌게 더 많은 것을 서로 교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재미있게 만들면 되는 것. 이겠지요?





SPECIAL EVENT, SUMMER'S BIRTH

PHOTO ESSAY BY SUMMER

행복한 생일의 끝판 왕!!!

3월 25일 밤, 11시 59분

2층 침대 방 앞에 앉아 생일이라고 파란색 리본머리띠를 하고 셀카를 찍던 나에게 Bernie가 손수건을 들고 찾아왔다. 그리고는 내 눈을 가리고, 마주보고 두 손을 꼭 잡아 내 앞에서 나를 보조해주며 1층 사무실로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던 손수건을 풀어주었는데, 캄캄한 방에서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22라는 큰 숫자 촛불이 빛나고 있는 케이크였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큰 테이블 밑에 모두가 들어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다 부르자, 테이블 밑에 웅크려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왔고, 불이 켜졌다. 불을 켜니 벽 쪽에는 생일 축하를 전하는 손 편지 카드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말고도 바탕 Y 친구들이 데코 해 준 음식들이 더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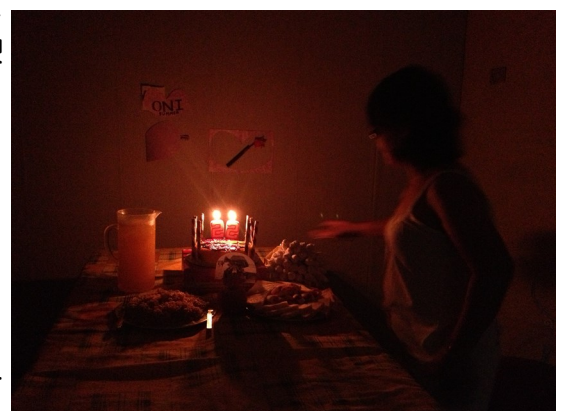
사실, 필리핀의 아침은 상당히 일찍 시작되기 때문에 주말이 아니면 오후 10시 넘어서는 모두 잠자리에 든다. 그런데 그 것에 비하면 내 생일 축하를 위해 12시까지 잠들지 않고 준비해준 것이라니 것을 알기 때문에 고맙다. 또 이것 저것 배달 시키거나 아니면 간단히 케이크만 사와서 시간 되면 딱 축하하고 노래 부르고 '이제 자자' 하는 상차림이 아니라, 손수만 든 편지들과 그 안에 꽂혀진 진심된 마음 그리고 축복을 나누기 위한 진지한 기도 시간, 늦은 시간이지만 누구 하나 잠자리를 재촉하지 않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누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어떤 편지 하나 그냥, '생일 축하해'라고 쓰여진 편지가 없었다. 모든 편지에는 지금까지 지내면서 나와 관계했던 자신의 모습과 느낌 그리고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어느 편지 하나 우리 둘 만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은 편지가 없었다는 사실이 나에게 놀라움과 기쁨으로 다가왔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 생일을 기쁘게 축하해주는 것에 감사했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던 밤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생일 축하의 서막에 불과하였으니...

3월 26일 아침, 8시

Mommy가 아침에 일어나 부은 눈으로 세수를 막 마치고 나온 나에게 다





SPECIAL EVENT, SUMMER'S BIRTH

FIRST CELEBRATION AT PHILIPPINES!

가왔다. 나에게 다가오는 Mommy의 손에는 붉은 장미꽃 세 송이와 편지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꼭 닮은 강아지 인형이 있었다. Mommy는 내 앞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고, 뺨에 보뽀해주시며 꽃과 장미 그리고 인형을 나에게 전해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말을 선물해주셨는데, "Summer, 오늘 한국이 많이 그리울 수도 있을 거 같아. 엄마가 이 강아지 인형을 주는 이유는, 네가 많이 보고 싶어하는 네 강아지를 대신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문득 그리워질 한국의 모든 것들을 이 강아지 인형을 통해서 치유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말이었다. 아침부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들이 나를 채우는 것 같아 너무나 너무나 감사했다.

3월 26일 아침, 11시

"Jeff, 왜 어제 밤에 나한테 편지 안 줬어? 설마 안 줄 건 아니지? 축하한다는 말뿐이고, 서운해. 네가 써 준 편지도 읽어 보고 싶어."

마당을 쓸고 있는 Jeff에게 내가 투덜거렸는데, Jeff가 내게 반색을 하며 대답했다.

"Summer, 내 선물을 특별해. 오늘 주려고 했었으니까 기다려, 있다가 later~"

또 무언가의 서프라이즈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맨 처음에는 '필리핀에서의 생일'이라는 건 정말 남다르구나,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서는 한편으로 또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다.

그리고 잠시 뒤, Jeff가 나에게 편지 한 장을 주었는데, H라는 큰 글자가 써져 있었고, H를 시작으로 하는 편지 글들이 써여져 있었다. 그렇게 편지를 읽다 보니 내용이 끊겼는데, 편지 반대쪽을 보니 A 편지를 어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적혀있었다. Happy Birthday의 철자를 하나 하나 따서 13개의 편지가 YMCA 곳곳 어디인가에 숨겨져 있는 것이었다. 영화에서만 보던 편지 찾기 방식이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는 일이 재미있었다. 그런데 편지가 꼭 장소에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떨 때는 우리 팀원들에게 숨겨져 있었고, 바탕Y 애들에게 숨겨져 있기도 했다. 그렇게 편지를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얼마나 서로서로 웃기고 재미있던지... 웃음이 멈추질 않았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편지를 찾아야 했을 때, 마지막 편지는 Jeff가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편지와 함께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

SPECIAL EVENT, SUMMER'S BIRTH

FIRST CELEBRATION AT PHILIPPINES!

지와 흰 장미꽃 다섯 송이를 받을 수 있었다.

편지를 찾는 나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었지만, 13장의 편지마다 내용을 어떻게 적을까 고민했을 Jeff의 마음과 노력이 너무너무 고마웠고 이런 건 처음 해본다며 너무너무 수줍게 장미를 건네는 모습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예뻐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에서 만나는 우리 친구들과의 시간이 무척 행복했고, 벌써 몇 번이나 전달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매번 받



게 웃으며 계속해주는 모습에 감동받았다. 특히 나와 함께 다니며 순간 순간의 사진을 담아준 미래에게 고맙다. '내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잠시 편지와 선물을 놓아두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정말 처음으로 마음이 벅차 오르는 생일의 기분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3월 26일 오후, 6시

오늘은 내 생일이기도 했지만 마침 Jeff의 ALS 통과 사실을 전달할 수 있었던 날이기도 했다. 마음으로 기뻛고, 눈물로 합격 소식을 전하는 Mommy의 모습에 또 한번 기뻛고, 너무 기뻐서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린 Jeff의 모습에 더욱 더 기뻛다.

그래서 우리 저녁시간은 Jeff를 위한 축하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니. Tita 도리스와 Mommy가 반나절을 부엌에서 손수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엄청난 양을 자랑하며 푸짐하게 차려졌다. 게다가 케이크에는 또 내 생일 축하 메시지와 제프리를 위한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었다. 우리 둘의 축하를 위해 초대된 이웃 사람들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나를 안아주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 모습에 난 정말, '과분한 사랑이 이런 건이구나'라고 깨달았던 것 같다. 3월 26일, 매시간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생일 축하를 전해주었고,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무언가의 수줍음과 진심이기 때문에 그런 수줍음이 함께 담겨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이미 축하를 해준 사람들도 나를 볼 때마다 생일축하를 전달해 주었다. 우리 Y 친구들과는 나를 볼 때마다 '생일은 서프라이즈로 가득해, 오늘은 네 생일이니까 모든지 즐겨, 축하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물질적인 선물 없이도, 이전의 그 어떤 생일보다 마음이 진심으로 감동받고 기쁨으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비록 한국이었다 해도 어떤 큰 물질적인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보여주기 식 생일이 많은 것 같고 나 역시도 한국에서 보내는 생일이었다면 마찬가지로 보여주기를 위한 어떤 기록물을 중요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속심에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다가 보다 정말 이 행복한 순간을 영원히 추억하고 들여다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HOLY WEEK:) / 0325-0331



<카노사 대학 연극>

카노사 대학에서 청년들이 준비한 종교주제의 연극을 감상하고, 필리핀 청년들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느낌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필리핀 사람들에게 종교가 가진 깊은 의미를 알 수 있었다.

<Trust 게임>

신뢰게임 : 라온아피와 바탕와이 그리고 아이안이 한 명씩 파트너가 되어, 라온아피는 손수건으로 눈이 가려진 채 파트너의 보조와 목소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활동해보는 시간

환철-RJ, 미래-JEFF, 정운-IAN, 기성-BERNIE 이렇게 서로 파트너가 되어 신뢰게임을 시작하였다. 사실 한국에서 국내훈련 도중 춤 명상 시간을 통해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을 믿고 활동해보는 과정이 있어서인지 우리 모두 걱정하고 낯선 마음보다 재미를 가지고 게임이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천천히 건다가 빨리 뛰기도 하고 때로는 점프하기를 요구해서 어떤 팀원은 망설이고, 또 어떤 팀원은 너무 적극적으로 점프를 해서 오히려 파트너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 각자의 팀원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며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웃으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파트너들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가만히 한 지점에 기다리라는 지시를 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한 뒤, 여기 저기서 몸을 쿡쿡 찌르기도 하고, 낙엽을 던지며 놀래 키기도 하며, JEK과 도리스가 옆에서 개 짖는 소리도 내고, 버들강아지로 계속 간지럼을 태우기도 해서 팀원들이 당혹함과 동시에 재미를 느끼고 각자의 파트너를 찾았던 것 같다.

그러다 손수건을 풀었는데, 우리는 우스꽝스런 모습으로 거의 같은 지점에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마지막은 우리가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에는 짧은 시간에 크게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서인지 보고 싶은 마음에 찾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다.

4TH WEEK

HOLY WEEK:) / 0325-0331

물론 해본 경험이었을지라도 눈을 가린 상태에서는 파트너를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한걸음이 무서운 상태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까워진 서로에 대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파트너 또한 큰 배려로 우리를 이끌어서 무사히 신뢰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또 한번의 계기를 통해 추억을 만들고, 각자와의 관계를 맺은 점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물론 더욱 깊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바나하오 산 1박 2일 캠핑>

필리핀의 사순절과 바나하오 산: 라온아띠가 함께 보내 필리핀의 사순절은 '예수의 고난을 기리는 행사'로서, 일주일의 홀리워크동안 6일을, 고기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다. 라온아띠가 체험한 것처럼, 신성한 산으로 여겨지는 바나하오 산에서 하루 혹은 며칠을 보내며, 동굴 안에서 의식을 치른다거나, 가파른 산을 오르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며, 가족들과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동굴탐사: 바나하오 산에는 사순절을 맞으면 여러 가지 행사의식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동굴을 탐사하고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우리도 함께 체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동굴 입구부터 동굴 속은 여러 가지 예수상과 불 켜져 있는 수많은 촛불들 그리고 촛농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동굴을 탐사하러 줄을 서있는 무수한 사람들과 촛불의 열기로 동굴 안의 온도는 상당히 높고 습기 또한 가득해서, 우리는 모두 열기와 땀에 온 몸이 흠뻑 젖었다. 필리핀 사람들은 이렇게 온 몸이 젖는 것을 그 동안 자신이 지은 죄라고 여기고, 그 죄를 밖으로 방출함으로써 죄가 씻겨져 내려간다고 믿는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본격적으로 동굴 안을 체험할 수 있다. 동굴에 들어갈 때는 한 손에 마음을 기원하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미끄럽고 비좁아서 서서 다닐 수 없고 무릎을 꿇은 채 때로는 두 손과 두 다리로 기어가야만 갈 수 있기도 했다. 또 중간에 무릎까지 차오르는 물을 건너가야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는 다같이 서로서로 돕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과정을 거쳐왔던 것 같다. 그렇게 동굴을 탐사하다 보면, 동굴 안의 신성한 샘 앞에 한 명씩 무릎 꿇고 앉아 물을 맞는 순서가 있다. 물을 뿌려주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바가지를 맞다 보니 정말로 죄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새로워서 즐거웠고, 다소 힘들 수도 있는 경험이었지만 그 의미와 이 나라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한번 더 배우고 성숙해진 기분이 들었다.

4TH WEEK

HOLY WEEK:) / 0325-0331

계곡 체험

동굴 체험을 한 뒤, 바나하오 산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다이빙 장소를 체험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우리 모두 한국의 산을 떠올리며 길이 잘 나있을 거라고 상상했던 것과 달리, 강을 끼고 가야 하는 길은 굉장히 험했다. 물 때문에 운동화를 신을 수 없어 조리를 신고 갔는데, 고정되지 않은 신발 때문에 미끄러운 길에서 팀원 몇몇은 몇 번씩 넘어져 위험할 뻔한 적도 있었다. 때로는 길이 매우 좁아서 아찔한 상황도 있었고, 때로는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계곡을 건너며 모든 짐을 머리 위로 들고 건너야 하기도 했다. 또 곳곳에 바위 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 단원들은 바탕 와이의 도움 없이는 건너지 못할 때도 있었다. 우리는 다이빙 장소로 가는 내내, "우리, 정글의 법칙 출연 한 거 아니지?"라고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30분 정도 갔더니, 정말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다이빙 장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기서 수영도 하고 한쪽에서는 몸을 씻기도 하고 있었다.(바나하오 산의 물은 신성한 물이라, 사람들이 놀고, 씻고, 마시는 물이라는 설명을 들었었다.) 우리는 신성한 물 안에서 신나게 놀았고, 몸을 씻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이 만들어 낸 장소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덩달아 행복해졌다.



산에서의 첫날 밤 그리고 나눔

팀원들 모두 바나하오 산에서의 첫날 밤을 무척이나 기대했었는데, 생각처럼 참 좋은 시간이었다. 함께 밥을 짓고 맛있



게 먹고 텐트와 텐트 사이에 다 같이 앉아 간식도 먹고 휴식하면서 시원한 산에서의 저녁을 보냈다. 그리고 어두워지자 주변의 캠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곳곳에서 촛불이 켜졌는데 이들이 얼마나 신성한 마음으로 산에서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어둑해지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 앉아 오늘에 대한 나눔을 나눴다. 바나하오 산에서 보내는 하루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오늘의 고마움을 나누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누다가 기타도 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4TH WEEK

HOLY WEEK:) / 0325-0331

바나하오 산 등반

이틀째 아침이 밝았다. 바나하오 산은 정말 신성한 산인지 모기도 없었고, 밤에는 추울 정도로 시원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본격적으로 산행을 하기로 하고 떠나기 전에 다같이 모여 안전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 대해서 기도를 했다. 또 산길도 어제처럼 상당히 가팔랐기 때문에 여자 단원들은 바탕와이와 거의 손을 잡고 등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오르고 있었고, 주위에는 우리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도 또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의연하게 함께 산에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자신을 계속 동기부여하며 오를 수 있었던 것 같다. 또 산을 오르면서 점점 드러나는 빼어난 절경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은 자연의 길 그대로의 바나하오 산 길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렇게 두시간여 동안 산을 오르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정상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큰 십자가 밑에서 촛불을 켜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도 함께 힘든 이 길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심에 기도 드리고, 각자의 기도도 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하며 기쁘고 즐겁게 사진도 찍고 함께 앉아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반대편 길로 내려왔는데, 올라오는 길 만큼이나 내려가는 길도 상당히 가팔랐다. 길은 가파르고 좁은데다 오르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많아서 서로 번갈아 가며 기다렸다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도움을 주었는데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많은 관심이 부담스럽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도움들에 상당히 감사했다. 산을 다 내려와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돌아올 수 있었다. 바나하오 산에서의 1박 2일은, 필리핀 사람들의 종교의식 그리고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 또 한번의 다른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배우며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짐을 느꼈다. 또한 우리끼리의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 한 시간이 된 경험이었다.



PHOTO ESSAY :)

WRITTEN BY REMY

내가 선택한 사진은 우리 집 분소인 King's graduation 사진이다.

γ식구들 모두 전날부터 King의 졸업식을 준비했다. King의 부모님은 Italy에 계시는 관계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King의 형도 γ로 오셨다. 다들 졸업식은 격식을 차린 모습으로 참석했다. 덩달아 우리도 그 날만은 편한 슬리퍼와 반바지를 내려놓고 운동화와 긴 바지를 입고 KANOSA school로 향했다. 우리는 필리핀의 졸업식 문화를 경험하고픈 마음에 함께 따라나섰지만 우리의 졸업식과 달리 필리핀의 졸업식은 장장 3시간동안 진행되었다. 내리쬐는 더위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지쳐갔고 우리와 함께 온 Jack이 지루하냐며 물어보곤 했다.

졸업식에 와서 축하하는 못해 준 커녕 너무 지루한 내색을 한 건 아닌가? 미안하기도 했다.

이제 졸업식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라는 마음을 갖고 계속 Jack을 따라다녔다. 그 때, Jack이 나에게 본인들 사진을 찍어달라며 처음으로 나에게 사진 부탁을 했다. 정말 낯선 기분이었다. Jack은 늘 우리에게 언니 사진 찍어요. 제가 찍어줄게요. 라며 늘 우리 사진을 찍어주기만 했었고, 나는 늘 사진을 누군가에게 찍히기만 했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주인공으로써 사진을 찍힐 당하는 것이 아닌 내가 γ식구들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나에게 꽤 신선한

이었고 너무나 좋았다. 내가 단순히 손님으로써 아무런 역할 없이 이 졸업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도 γ의 한명의 식구로서 나도 이 속에서 하나의 역할을 가진다는 것이 나를 뿌듯하게 했다.

나는 특별하거나 거창한 시간이 아닌 이런 일상적인 시간들 속에서 내가 γ의 식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필리핀 속에 녹아들고 있음을 느낀다.





3. 29(Fri)

Schedules

Camping at MT. Banahaw(3. 28 ~ 3. 29)

Watching the regional Parade at Main road, San Pablo City(3. 29)

Noah : 지난 이틀, 다들 수고 많았어. 산도 다녀오고, 물놀이도 하고. 이런 저런 행사들도 참가하면서 서로 느낀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 한번 이야기해 볼까?

Remy : 응. 그럼 나부터 이야기할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을 경험한 거 같아. 물론 정말 즐겁기도 했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난 우리끼리, 정운이 언니랑 두 오빠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즐겁고 재미있는 다섯 달을 보내다 가자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 바나하우 산을 오르면서 우리끼리만 즐겁게 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 낯설고 어색한 것 투성이인 곳에서, 우리끼리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즐겁게 해 낼 수 있을까? 아마 제대로 적응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

우리가 즐겁고, 편하게 지난 이틀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바탕 Y 덕분이었던 것 같아. 1박 2일동안 산을 오르고, 물놀이를 하고, 밥을 먹고, 텐트를 치는 모든 일들이 바탕 Y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아. 솔직히 난 바탕Y들이 없었으면 그 험악한 산에서 멀쩡히 돌아 올 수 없었을 거 같아. 산을 오르는 4시간 동안, 그 친구들의 진심을 계속 느꼈어. 그래서 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바탕 Y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지 고민했어. 정말 고맙기도 하고 말야.

Kim : 응, 나도 그래. 그것보다 솔직히, 난 산을 참 좋아해. 그래서 산에 간 것 자체로도 즐거웠어. 밥도 맛있었고, 물놀이도 너무 재미있었고. 처음엔 등산이 많이 힘들까 싶어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힘들지 않아서 좋았고,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 좋아.

첫 날, 그 더운 동굴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나뭇대로의 종교 의식을 위해 기다리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엄청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올라가고, 일주일 동안 그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필리핀 사람들이 참 종교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이 곳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했어. 부활절 퍼레이드도 같은 맥락이었어. 나에게 있어, 한 국가의 대부분이 같은 종교를 믿는다는 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한 일인 것 같아.

Noah : 응, 다들 고마워. 이틀 동안 수고 많았어. 핸드폰이 고장난 덕분에 산에 핸드폰을 들고 가지 않았던 건 어찌 보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사람들과 더욱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어. 사진을 못 찍은 게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야. 산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으니, 난 개인적인 고민들을 좀 이야기할게.

종교에 관련된 부분 중 몇 가지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 낯설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 종교라는 것을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이야. 하지만 같은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는 기독교도의 입장, 아니 개신교를 믿는 내 입장에선 과연 저 퍼레이드나 의식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화려한 장식의 퍼레이드, 그 뒤를 따르는 헤어진 옷의 사람들은 내게 낯선 풍경이었어. 퍼레이드를 위해 장식된 무개차의 꽃을 마구잡이로 뽑아가며 그 꽃들



이 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혼란스럽기도 했어. 동굴과 산 곳곳을 가득 메운 촛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위험한 건 아닌가 싶더라고. 좁은 동굴 안에 사람들도 가득한데, 계속 촛불이 태워지니까. 산 곳곳에 사람들이 켜 놓은 촛불도. 저러다 자칫 불이라도 나면 어쩌지 싶더라고.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하게 되었던 것 같아.

Summer : 난 이틀 동안의 일정을 통해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가기 전엔 힘들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갔었어. 그래서 신나게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닥치니 그렇지 않더라고. 산을 오르면서, 제프리가 계속 나를 도와줬잖아. 어느 순간, 제프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난 제프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지 못했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좋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의지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

1박 2일 동안, 바탕 Y 친구들 덕분에 참 많은 도움을 얻었어.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것을 반성하기도 했어. 특별하게, 평생 한 번 해 볼 경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 딱, 5개월이잖아. 시간을 더욱 감사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

오늘 저녁에 방문했던 종교 축제는. 음. 볼 거리는 많았지만 마음이 와 닿지 않아 솔직히 귀찮았어. 다음엔 또 다르겠지.

Noah : 응, 다들 그렇구나. 수고 많았어. 이제 3월도 다 갔네. 그럼 잘 마무리하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

PLANS FOR THE NEW MONTH

APRIL, FULL OF JO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OVING TO NEW ACCOMODATION MEATLESS MONDAY	2 DANCE EXCERSICE OUTREACH AT BE- SIDES OF RAILROAD MEETING W/ VOLUNTEERS FOR	3 VISIT BALOC	4 MEETING W/RICHARD (CHURCH)	5 JEK'S PHOTOSHOT!	6 NEW HOME WEO- COMING PARTY
7 BIRTHDAY OF SIR CHRIS	8 MEATLESS MONDAY MEETING W/ VOLUN- TEERS FOR SUMMER PROGRAM	9 MEETING W/ CHIEF BOARD MEMBER OF CHICKNESS CHURCH FOUNDATION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10 SUMMER PROGRAM	11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12 SUMMER PROGRAM	13
14 NOAH'S BIRTHDAY HELD A PARTY AT BALOC COMMUNITY	15 SUMMER PROGRAM MEATLESS MONDAY	16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17 SUMMER PROGRAM	18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19 SUMMER PROGRAM	20 JEK'S BIRTHDAY PARTY
21 CLASS AT BALOC COMMUNITY	22 SUMMER PROGRAM MEATLESS MONDAY	23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24 SUMMER PROGRAM	25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26 SUMMER PROGRAM	27
28 CLASS AT BALOC COMMUNITY	29 SUMMER PROGRAM MEATLESS MONDAY	30 FORMAL ENGLISH CLASS W/SIR CHRIS				